

광주·전남 잇단 빈대 출몰...지역민 불안 속 방역 '비상'

광주 쌍촌동 이어 진도 주택·외국인 근로자 숙소서 사체 10마리 발견 “우리집까지 퍼지면 어떡하나” 우려...지자체 허술한 방역체계 지적도

광주와 전남에서 잇따라 빈대가 발견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민들은 광주·전남 지자체의 방역체계가 허술해 빈대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 진도군 의신면의 한 어가 주택 1개 동, 외국인 숙소 1개 동에서 빈대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진도군은 주민으로부터 “빈대에 물린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을 조사한 결과 침대 매트리스

스에서 빈대 사체 6마리를 발견했다. 이어 업주의 집에서 2km 떨어진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도 방 3곳 중 2곳에서 빈대 4마리 사체가 발견됐다. 이곳에서는 업주와 함께 뱃일을 하는 인도 출신 외국인노동자 3명이 머물고 있다.

진도군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업주와 함께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 빈대를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부 전파나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교류하다 빈대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3년 전 입국한 후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20일 업주 등에게 간이용 살충제를 전달하고 방역교육을 시켰으며 22일 본격적인 방역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4일에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기초수급자 주민으로부터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이 집에서 다수의 빈대가 서식중인 것을 확인하고 방역 조치를 했다. 방역당국은 빈대가 같은 건물 내 다른 집이나 인근 주택 등 외부로 전파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잇따라 빈대가 확산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빈대가 사람의 옷이나 대중교통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 터라 순식간에 광

주·전남 전역에 퍼지진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진도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고모(29·진도읍)씨는 “빈대 발견이 타 지역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집 근처에서 빈대가 발견돼 놀랐다”며 “우리 지역에도 빈대가 퍼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년째 지취 중이라는 유재운(29·광주시 서구)씨는 “광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니 평소보다 더 조심하게 된다. 택배 주문도 불안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꺼려진다”며 “빈대는 일반인은 쉽게 방역하기 힘들 정도로 끈질기다는데 자칫 우리 집까지 퍼지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아 전파 경로를 알기 어렵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빈대가 법정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역학조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광주·전남의 첫 빈대 발견 사례가 외국인 노동자와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과 무분별한 혐오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주성 광주외국인복지센터장은 “빈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빈대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힘없는 사람들을 탓하고 몰아세우는 것을 자제하고 보다 포용적인 시각으로, 편견 없는 시선으로 사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성매수하다 걸린 광주시청 공무원 3명

서부경찰, 원룸 6곳 빌려 성매매한 일당 등 24명 검찰 송치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한 일당과 성매수를 한 광주 시청 공무원 등 24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2일 다세대주택 원룸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업소 운영진 3명과 업소 종사 여성 4명, 광주시청 공무원 3명을 포함한 매수 남성 16명 등 2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다세대주택 원룸 6곳을 빌린 뒤, 성매매 웹 사이트

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올리고 남성들로부터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수 남성을 특정 장소로 불러 신원을 확인하고 업소에 입장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2만여건에 달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 건당 15만원씩, 모두 35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연루자 및 해당 업소와 연계된 다른 업소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충돌사고 구조 작업 22일 오후 2시 50분경 광주시 서구 서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SUV 차량이 1t 화물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30대 A씨와 SUV 운전자 20대 B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역 언론사 임원 장성서 숨진 채 발견

광주지역 언론사 임원이 22일 장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광주 지역 언론사 임원 A씨가 장성군 한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차량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물건이 함께 확인됐다.

A씨 가족이 지난 19일 실종신고에 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접속기록을 통해 최종 위치가 장성 인근임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서 숨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이 주차된 사유지 인근 CCTV를 조사결과 A씨 차량이 들어가는 것 외에 출입흔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A씨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 관급공사 현장에서 옹벽 무너져 3명 사상

순천시 관급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작업자 한명이 숨지고 주민이 크게 다치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2일 순천경찰·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순천시 외서면 도산리의 한 도로에서 3m 높이의 옹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A(51)씨는 흩더미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또 현장에서 작업을 도와주던 지역 주민 B(70)씨가 낙석 등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인근에 있던 C(61)씨도 파편에 맞고 경상을 입는 등 총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6일부터 순천시가 발주한 외서도신마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

었다. 마을 진입로 폭을 확장하고 2.5m 높이의 석축을 44m 가량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A씨는 산자락을 깎아내고 옹벽을 쌓은 뒤 배수로를 파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배수로를 내기 위해 설치한 거푸집에 발이 끼어 B씨의 도움을 받아 발을 빼내려 하고 있었는데, 이 때 연약한 지반이 흔들리면서 옹벽이 흩깨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달리던 트럭 타이어 빠지며 전도 사고처리 도우려다 황...9명 사상

고창-담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22일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담양군 고창-담양고속도로 순천 방향 38.5km 지점에서 1t트럭의 타이어가 빠지면서 차량이 전도됐다.

뒤따르던 SUV차량이 사고 처리를 돕기 위해 트럭 앞에 정차했으나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3명 중 운전자 A(64)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동승자 B(60)씨는 중상을 입었다.

SUV차량에 타고 있던 5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교도소 수용자 우편물서 마약 적발 수사

광주교도소 수용자 우편물에서 마약이 적발됐다. 22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교도소 수용자에게 온 등기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우편 봉투안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교도소는 즉각 교정특별사법경찰에게 통보해 발신자와 관련자들을 색출해 공범 1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인천구치소에서 신입수용자가 반입 물품에 숨겨 놓은 마약을 적발했다. 한 달 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마약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수용자를 적발해 사법처리 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마약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사범 치료프로그램 개선, 마약사범 전담 재활 교정시설 운영 등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